

남구민, 구정 홍보매체 1순위 관심 '생활경제'

온라인으로 1573명 조사 "내년도 구정 홍보에 반영"

광주 남구가 운영하는 SNS 계정과 소식지에서 관내 주민들은 일자리를 포함한 생활경제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남구에 따르면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고, 홍보매체에 대한 만족도를 비롯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온라인 네이버 폼을 통해 진행했다.

설문 문항은 △일반 현황 △온라인 SNS 매체 만족도 △소식지 만족도까지 3개 분야 14개 질문으로 구성됐으며, 조사에 참여한 주민은 1573명이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두는 구정 소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39.8%는 일자리와 착한가게 등 생활경제를 꼽았고, '문화·관광 분야의 남구 명소'가 31.5%

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또 SNS 분야에서 '남구 SNS 계정 방문 목적'을 조사했는데 39.2%는 '생활정보' 때문이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구정소식'은 31.3%였다. 지난해 조사에서 '구정소식'과 '생활정보' 응답 비율이 각각 37.9%와 32.3%인 것과 비교하면 뒤바뀐 결과가 나온 것이다.

소식지와 관련해 '어떤 측면에서 가장 만족하는가'를 물었는데, 이 조사에서도 응답자 52.4%는 일상생활과 관련한 유

용한 정보 획득을 1순위로 꼽았다.

주민들이 이처럼 일상 생활정보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국내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현 상황과 맞물려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정보를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남구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내년도 구정 홍보 종합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며 "홍보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확실하게 긁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찬기자

제34회 배동신 어등미술제 개최 광산구, 회화 26~27일 접수

광주 광산구가 미술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제34회 배동신 어등미술제를 개최한다.

4일 광산구에 따르면 배동신 어등미술제는 광산구가 주최하고 광산문화원이 주관하며 수채화의 거장 배동신 화백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는 회화, 서예, 문인화 등 총 세 분야로, 외국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거주하는 사람 누구나 1인 2점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출품 원서는 광산문화원 누리집과 광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회화는 오는 26~27일까지 전자우편(gsc3377@hanmail.net)으로, 서예·문인화는 오는 10월1~2일까지 광산문화원(광주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 2층)에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10월 중 선정하며 11월15일 오후 2시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시상식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시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

자세한 안내는 광산문화원(062-941-33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탄소중립 아이디어·사진 공모전 광산구, 22일까지 공모작 접수

광주 광산구는 오는 22일까지 탄소중립 아이디어 및 실천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4일 밝혔다.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전'은 탄소중립 도시 광산 실현을 주제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시민인식개선 홍보·교육·캠페인 아이디어 등을 제안받는다.

'탄소중립 실천사진 공모전'은 △나무심기 △분리수거 △친환경 제품 사용 등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모습을 촬영하면 된다.

광산구는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에게 소신 시까지 1만원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광산구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실천 사진 공모전은 광산구에 주소를 둔 시민이어야 한다.

참여 방법은 22일까지 광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전자우편(hshy1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산구는 접수된 아이디어들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결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 사업으로 검토 및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전 결과는 10월 중 수상자 개별로 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환경과(062-960-8432)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탄소중립 아이디어와 실천사진 공모를 통해 민·관에서 실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며 "광산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성이 기자

김상철 기자



'제1회 순환도시 동구라미 축제' 동구, 7일 산수문화마당·푸른길

광주 동구는 자원순환의 날(매년 9월6일)을 맞아 오는 7일 산수문화마당과 푸른길공원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1회 순환도시 동구라미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지난 2009년 환경부와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제정한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원을 오래 쓰는 재사용 문화를 확산하고 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재활용을 테마로 한 다양한 문화 체험 향유 기회를 제공해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행사를 기획했다.

축제에서는 쓰레기 올림픽, 수세미 만들기, 바느질 수선체험 등 자원순환 스탬프 투어에 참여하면 제로 웨이스트 경품을 제공하는 시간을 비롯해 분리배출과 재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콘텐츠들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도시의 숨겨진 자원을 악기로 제작해 연주하는 '업사이클링 밴드 홀라'의 공연 △환경 보호 메시지를 담은 순환도시 퍼포먼스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방법을 배울 수 있는 OX퀴즈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판매하는 나눔 중고 장터(알쓸장)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부스들로 산수문화마당과 푸른길공원 산책로를 채워 방문객들의 발길을 이끌 예정이다.

더불어 쓰레기 없는 축제로 진행돼 대화용품 사용을 지향하고자 텀블러, 개인용 식기와 수저, 장바구니를 지참하면 경품 추첨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처음 개최하는 동구라미 축제는 주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감해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채워질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순환도시 동구를 만드는 데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광주 북구가 4일 북구청사 일원에서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 '청바지 데이'를 운영했다. 문인 북구청장이 출근하고 있는 직원에게 '청렴 라떼'와 간식을 전달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청렴 실천 다짐해요" 북구, '청바지 데이' 열어

구청 일원서... 청렴네트 등 운영

광주 북구가 4일 북구청사 일원에서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 '청바지 데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청렴 바람이 지금 북구에 불어라!'라는 주제로 펼쳐진 청바지 데이 캠페인은 직원들에게 편안한 일상복 착용을 유도하고 청렴 주제의 활동을 제공해 수평적인 소통과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청 광장에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국장급 간부 공무원들이

청바지 차림으로 피켓 등을 들고 나와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또한 출근하고 있는 직원에게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나 때 말고 청렴 라떼' (직원격려 커피)와 간식을 전달하며 직원들의 힘찬 하루를 응원했다.

이외에도 북구는 젊은 세대에 인기 있는 포토존을 주제에 맞춰 꾸민 '청렴 네트 포토 부스'를 청사 로비에 설치·운영해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고 직원 간 소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 추진을 통해 부패근절과 청렴 실천에 대한 직원

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인 만큼 앞으로도 1700여 북구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더욱 청렴한 북구를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올해 △청렴 정책추진단 청렴 더(The) 키움단 운영 △갑질 예방 숏츠 영상 제작 △문화 체험형 청렴 교육 추진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청렴은 도계 운영 등 4대 분야 24개 종합 청렴 대책 수립·추진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 의식 제고와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윤준명 기자

백종한 서구의원, 서구청 육아 직원 '주 1회 재택근무' 제안

출산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필요

백종한(사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청 육아 직원들의 '주 1회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백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청 육아 직원 대상 주 1회 재택근무 제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날 백 의원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



용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며 "지난 3월 기준 서구청 육아공무원(8세 이하)은 237명, 8월 기준 육아공무원(5세 이하)은 42명으로 적지 않은 인원이 육아와 직장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지난 1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서구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최

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출산·양육·돌봄 등 저출생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부동산 교부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만큼 △예산 확보 △직원복지 △양육·돌봄 이 3가지 지점을 가진 정책을 꼭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제주도, 경기도, 충남도, 서울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 정책이 시행 중이다"며 서구에서도 적극 도입해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성이 기자